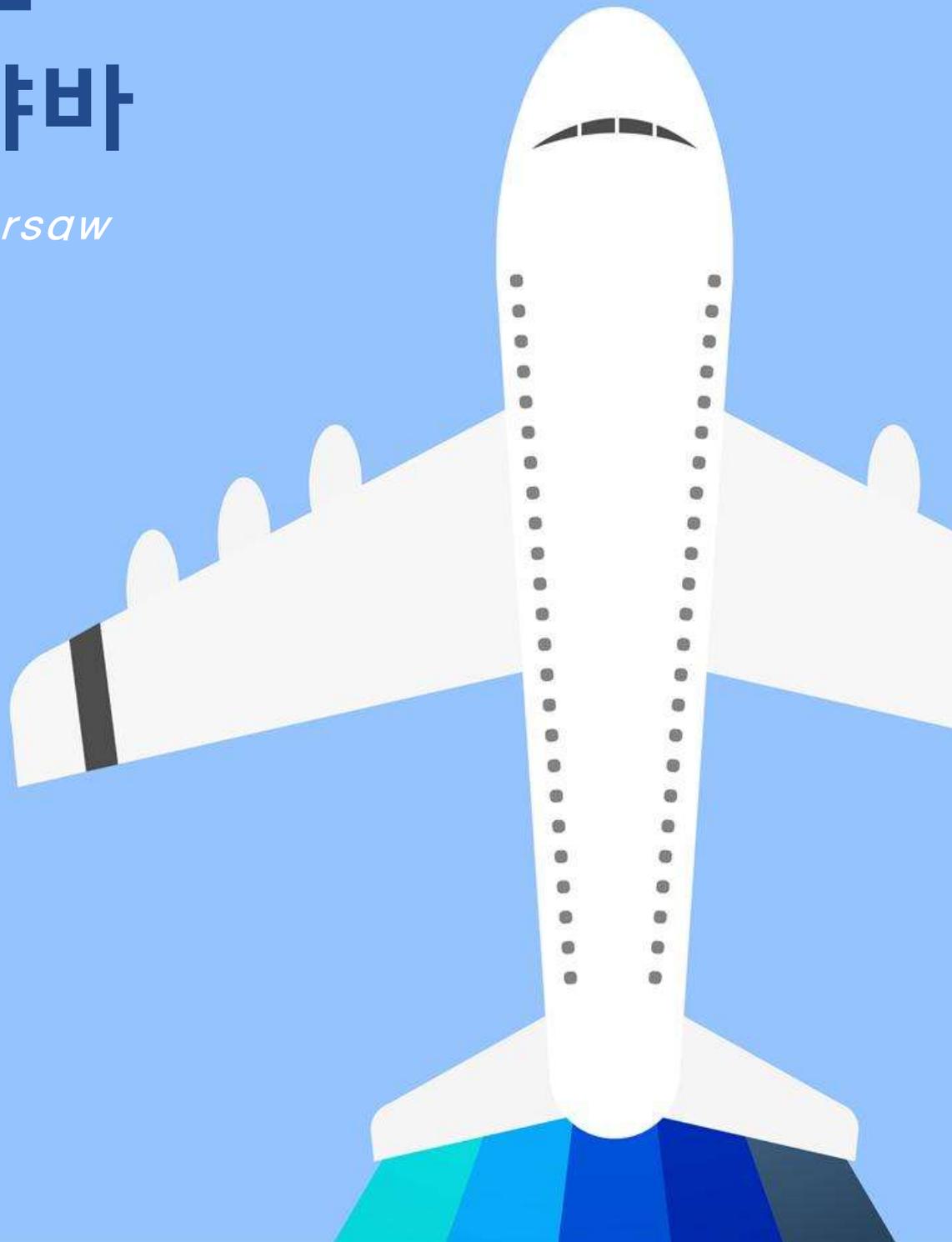


2021 해외출장 가이드

# 폴란드

## 바르샤바

*KOTRA Warsaw*



## 목 차

I . 폴란드 개황 .....	1
1. 한 눈에 보는 폴란드 (1)	
2. 정치사회 동향 (2)	
3. 경제 동향 및 전망 (5)	
II . 우리나라와의 관계 .....	11
1. 한-폴란드 관계 (11)	
2. 한-폴란드 교역현황 (13)	
3. 한-폴란드 투자현황 (15)	
III . 비즈니스 출장 가이드 .....	16
1. 시장 특성 및 상거래 관행 (16)	
2. 바이어 접촉 시 유의사항 (17)	
3. 비자 및 출입국 절차 (20)	
4. 폴란드 체류 정보 (21)	

## 1. 폴란드 개황

### 1. 한 눈에 보는 폴란드

#### □ 국가 개황

국명	폴란드공화국 (폴: Rzeczpospolita Polska, 영: The Republic of Poland)
건국(독립일)	1918년 11월 11일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3국 분할 시대 종료)
위치	중부유럽 (북위 49~54도, 동경 14~24도) - 접경국 :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러시아
면적	312,685km <sup>2</sup> (한반도의 1.4배)
기후	서유럽 해양성 기후와 동유럽 대륙성 기후 사이 접이지대 여름 : 날씨가 온화하며 잦은 소나기 / 겨울 : 춥고 눈이 많으며 강수 빈번
수도	바르샤바 (폴: Warszawa, 영: Warsaw)
인구	3,826.5만 명 (2020.12월 기준)
정부형태	의회공화제
국가원수	대통령 :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총 리 :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정당	여 당 : PiS (법과정의당, 보수) / 제1야당 : PO (시민연단, 중도우파)
입법부	양원제 (상원 100석, 하원 460석)
민족(인종)	폴란드인(96.9%), 실레지아인(1.1%), 독일인(0.2%), 우크라이나인(0.1%), 기타 (1.7%)
언어	폴란드어 (슬라브어 계통)
종교	카톨릭(85.9%), 동방정교(1.3%), 개신교(0.4%), 기타(12.4%)
화폐	Złoty (즈위티, 약자는 zł 또는 PLN)
환율	1 USD = 3.89 PLN, 1 EUR = 4.44 PLN, 1 PLN = 304 KRW (2020년 연 평균)
명목GDP	총 5,942억 USD, PPP기준 1인당 34,100 USD (2020년)
무역	수출 2,710억 USD (2020년) - 주요 수출품목 : 기계류, 일반차량, 전기기기·TV, 가구류·조명기구, 플라스틱, 철강제품, 육류, 고무, 목재·목탄 등  수입 2,572억 USD (2020년) - 주요 수입품목 : 기계류, 전기기기·TV, 일반차량, 광물성연료·에너지, 플라스틱, 철강, 의료용품,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철강제품 등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폴란드 중앙은행('21.6월 기준)

## 2. 정치사회 동향

### □ 주요 정치 현안

- 보수주의 정당 ‘법과정의당(Pis)’이 정권 장악
  -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총선, 2020년 대선에서 우파 민족주의 성향의 ‘법과정의당(Pis)’이 승리하면서 상대적으로 법치주의와 친EU 성향이 둔화되었고, 유럽연합(EU)의 민주주의 보호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는 우려 존재
  - ‘시민연단(PO)’을 필두로 하는 야당은 청년층과 도시민들의 지지를 얻으며 여당의 독주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박빙의 승부 끝에 정권 탈환 실패
  - 여당의 권력이 공고하고 한 터라, 폴란드의 정세는 큰 변화없이 한동안 지속되고 국가 정책도 차질 없을 것으로 전망
  
- 폴란드의 자국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EU와 정치외교적 마찰 지속
  - 민족주의적 정당이자 현 집권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은 국가 발전을 위해 기존 낡은 제도의 개혁이 필수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며 각종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EU와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음.
  - 2017년 대통령이 판사 임명권에 대한 실질적 권한의 행사가 가능한 사법개혁 법안 추진으로 EU 주요국의 비난 고조
  - EU는 동 개혁안이 사법부 독립성 침해라고 비난하며 수차례 경고하였고 유럽집행위는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리스본 조약 제 7조’를 본격 준비하는 등 폴란드-EU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
    - \* 리스본 조약 제7조가 발효되면 폴란드는 경제 제재, EU기금 제한, EU내 표결권 박탈 등의 제한을 받게 됨.
  - 그 외 난민 수용 거부, 비아워비에자 숲 벌목, 남녀 간 퇴직연령 차별 조정 등에 대해서도 EU와 의견 대립 지속
    - \* 2015년 9월 EU가 회원국의 인구와 경제력 등을 기준으로 난민 수용 쿼터를 정하였으나 폴란드를 비롯한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현재까지 난민 수용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음.
    - \* 폴란드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퇴직연령 단축(기존 남녀 67세에서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로 단축)을 시행중이며, 이에 EU는 남녀 성 차별적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

## □ 정치 개황

- 폴란드의 정치 체제는 기본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권 분립에 기초하며, 폴란드의 행정부는 대통령과 내각으로 구성
  -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며 임기 5년에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하고,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해 국정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
  - 총리는 각료회의의 수장으로서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수행하는데, 대통령이 하원 다수당과 협의하여 지명
  - 총리 지명자가 내각을 구성한 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하원이 이를 인준, 총리는 하원에만 책임을 지며 대통령은 총리 해임권이 없음.
  
- 2005년 과거 공산시대에 뿌리를 둔 정치세력 몰락
  - 공산정권 붕괴 이후 민주좌파연합을 통해 정치세력을 유지해오던 공산주의 세력이 2005년 총선에서 의석수를 대거 빼앗기고 대선에서 후보가 선거를 포기하면서 정치 영향력을 잃음.
  
- 2020년 7월 대선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 연임 성공
  - EU 내 자주적인 폴란드의 목소리를 내고자 유로존 가입 반대를 주장
  - 친 미국, 반 러시아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
  
- 현 정권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 국민건강기금(NFZ) 폐지 및 주(州) 예산에 복지부분 예산을 별도 편성, 보건제도 개혁 추진
  - 연금 수령액이 적어지는 문제로 퇴직연령을 남자 65세, 여자 60세로 하향 조정
  - 동맹을 통한 안보강화를 강조, 폴란드 내 NATO군 주둔 요구 및 군 현대화 추진
  - 기업 세제혜택(법인세 인하, 3인 이상 중소기업 세제혜택), 양육수당 지급, 신혼가구를 위한 저가주택 공급 등 경기 활성화 및 내수 진작, 복지 제고
  - 책임개발전략(Strategy for Responsible Development), 전기자동차 계획 (Electromobility) 등을 통해 새로운 국가 핵심 산업 및 성장동력 육성

## □ 대외 관계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에 가입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 폴란드는 1999년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으로 국가 안전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받았으며, 2004년 5월 유럽연합(EU)에 가입하여 서구 경제권으로 재편입
  - NATO와 EU 가입은 폴란드에게 있어 군사적인 안전과 경제적 발전의 틀을 구축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는 회원국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
  
- 인근국 독일과는 1970년 브란트 서독 총리의 과거사 사과 및 폴란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이후로 관계 호전
  - 특히 2010년 폴란드 총선에서 친 EU 성향의 세력이 승리하면서 전 독일 외무장관인 베스터벨레가 대 폴란드 친선외교 정책 이끌었고, 그 이후도 양국정상 우호관계가 이어지고 있음
  - 메르켈 독일 총리의 조부가 폴란드 포즈난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폴란드인들이 특히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있음
  
-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협으로 친 미국, 반 러시아 성향 고조
  -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과 크림반도 병합 이후 폴란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국 내 미군 배치 확대, 미국산 무기 구입을 확대하고 있음
  
- 경제외교 강화의 일환으로 국가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2012년 6월 우크라이나와 'UEFA 유로 2012'를 공동개최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
  
- 법과정의당(PiS), 독자적인 폴란드 힘을 기르는 데 주력, 反EU 성향
  - 현 내각인 법과정의당은 국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유로화 도입 및 난민 유입 등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EU정책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하는 중
  - 과거 그리스와 스페인 경제위기, EU 회원국에 부과된 엄격한 예산 적자 제한 정책, EU 내 특정 국가들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회의론 등이 배경

### 3. 경제 동향 및 전망

#### □ 주요 거시경제 지표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명목GDP	십억 USD	526.64	587.43	595.77	594.18
1인당 GDP	PPP, USD	30,160	32,540	34,620	34,100
경제성장률	%	4.8	5.4	4.5	-2.7
정부부채	GDP대비 %	50.6	48.8	45.7	57.7
물가상승률	%	2	1.60	2.3	3.4
실업률	%	4.9	3.8	3.3	3.2
기준금리	%	1.5	1.5	1.5	0.1
연평균환율	USD/PLN	3.78	3.61	3.84	3.89
연평균환율	EUR/PLN	4.26	4.26	4.30	4.44
수출	십억 USD	234	263	267	271
수입	십억 USD	234	269	266	257
무역수지	십억 USD	0.6	-5.4	1.3	13.9

\* 자료원 : IMF, 폴란드 중앙은행, Global Trade Atlas, 2021년 6월 확인 기준

#### □ 경제 현황 및 전망

- 2004년 EU 가입 이후 2019년까지 플러스 성장 지속
  - 폴란드는 2004년 EU 가입 이후 역내 수출 증가, 꾸준한 외국인 투자 유입, 건설 및 인프라 투자 확대에 의한 내수경기 활성화 등으로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 특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EU 회원국 중 유일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에도 EU 회원국 평균 경제성장률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성장을 달성함.
  - 2019년 경제성장률은 가계소비 증가에 힘입은 내수경기 호황, 실업률 감소, 정부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4.15%를 기록

-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마이너스 2% 이상대로 하락하였으나, 2021년 점차 경기회복기로 진입 예상
  - 2020년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국경봉쇄, 경제활동 규제 등 제한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여 2020년 GDP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 이상으로 하락하였음. 그러나 폴란드 정부의 경제복구 기업 지원금 정책 등의 실시로 폴란드의 경제성장률 하락폭은 타 EU회원국과 비교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21년 폴란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6개 기관 평균 약 4.13%, 2022년 전망치의 경우 6개 기관 평균 약 4.91%에 해당함.

**< 주요 기관별 폴란드 GDP 성장률 전망 >**

기관명	2021년	2022년
IMF	3.5%	4.5%
PKO 은행	5.1%	4.7%
OECD	3.7%	4.7%
European Commission	4%	5.4%
폴란드 국립 경제연구소	4.4%	4.8%
폴란드 중앙은행 (NBP)	4.1%	5.4%
평균	4.13%	4.91%

\* 자료원 : 각 기관 자료 종합, 2021년 6월 확인 기준

**< EU 주요국 GDP 성장률 및 전망 >**

구분	국가	2019년	2020년	2021년(전망)
주요 EU 회원국 (유로화 사용)	독일	0.6%	-4.8%	3.4%
	프랑스	1.5%	-7.9%	5.7%
	이탈리아	0.3%	-8.9%	4.2%
	스페인	2.0%	-10.8%	5.9%
	그리스	1.9%	-8.2%	4.1%
	슬로바키아	2.4%	-4.8%	4.8%
주요 EU 회원국 (자국통화 사용)	체코	2.6%	-5.6%	3.4%
	헝가리	4.9%	-5.0%	5.0%
	폴란드	4.1%	-2.7%	4.0%
기타	영국	1.5%	-9.9%	5.3%
유로화 사용 19개국 평균		1.3%	-6.5%	4.3%
영국 제외, EU 회원 27개국 평균		1.5%	-6.1%	4.2%

\* 자료원 : European Commission, IMF

○ 폴란드 국가신용등급 대체로 안정적인 국가전망 유지

- 최근 몇 년 간 폴란드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견실한 경제성장세를 근거로 각 신용등급 기관에서는 폴란드 국가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평가해옴.
- 폴란드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2021년 4월 Moody's는 국가 신용등급을 A2로, 전망은 Stable로 유지하였으며, S&P와 Fitch 역시 A-등급과 Stable 전망으로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있음.

< 신용평가 기관별 폴란드 국가 신용등급 및 전망 >

기관	S&P	Fitch	Moody's
등급	A-	A-	A2
전망	Stable	Stable	Stable
최종 발표일	2021. 4. 2.	2021. 3. 19.	2021. 4. 30.

\* 자료원 : 각 기관 자료 종합, 2021년 6월 확인 기준

○ 주요 수출국

-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EU 회원국들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유로존 경제위기 이후 전체 수출에서 EU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추세였으나, 2014년부터 다시 무역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對EU 회원국 수출이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며, 유로화 사용국으로 한정했을 때에는 전체 수출 중 약 57% 규모임.
- 2020년 수출규모로 보았을 때 인접국인 독일과 체코로의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상위 10개국 중 영국(3위), 러시아(7위), 미국(9위)을 제외한 7개국이 EU 회원국임.
- 폴란드의 수출 3위 국가인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교역규모가 감소하였음.
- 한국으로의 수출은 2020년 기준 약 7억 4천달러 수준이며 전체 수출국 중 0.27%의 비중을 차지해 42번째에 위치해있음.

< 폴란드 수출 동향 >

순위	국가	수출규모 (백만 USD)			비중(%) (2020)	증감률(%) (2020/2019)
		2018	2019	2020		
전체		263,563	266,602	271,049	100.00	1.67
1	독일	74,346	73,928	78,355	28.91	5.99
2	체코	16,807	16,324	15,793	5.83	-3.25
3	영국	16,433	15,944	15,500	5.72	-2.79
4	프랑스	14,664	15,554	15,132	5.58	-2.71
5	이탈리아	12,151	12,067	11,732	4.33	-2.77
6	네덜란드	11,905	11,680	11,479	4.23	-1.73
7	러시아	7,961	8,312	8,170	3.01	-1.71
8	스웨덴	7,347	7,458	7,929	2.93	6.32
9	미국	7,245	7,575	7,657	2.82	1.08
10	스페인	6,690	6,757	6,867	2.53	1.62
<b>42</b>	<b>대한민국</b>	<b>612</b>	<b>697</b>	<b>739</b>	<b>0.27</b>	<b>6.12</b>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2021년 6월 확인 기준

○ 주요 수입국

- 폴란드는 독일로부터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전체 수입 규모 중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독일 다음으로는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큰 규모를 차지해 왔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혁명 이후 수입 규모가 감소하여 2015년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 중 약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로화 사용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약 57%를 차지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20년 전체 중 1.82%를 차지해 14위를 기록하고 있고,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약 14.7%의 증가율을 기록

< 폴란드 수입 동향 >

순위	국가	수입규모 (백만 USD)			비중(%) (2020)	증감률(%) (2020/2019)
		2018	2019	2020		
전체		268,951	265,288	257,168	100.00	-3.06
1	독일	74,152	71,538	70,671	27.48	-1.21
2	중국	21,201	22,988	26,638	10.36	15.88
3	네덜란드	14,919	14,950	15,717	6.11	5.13
4	이탈리아	13,861	13,385	12,803	4.98	-4.35
5	러시아	18,821	15,920	11,360	4.42	-28.64
6	체코	10,776	10,563	9,830	3.82	-6.94
7	프랑스	10,698	10,693	9,763	3.80	-8.69
8	벨기에	10,062	9,811	9,537	3.71	-2.79
9	스페인	6,322	6,248	6,258	2.43	0.16
10	슬로바키아	6,340	6,200	6,164	2.40	-0.59
<b>14</b>	<b>대한민국</b>	<b>3,665</b>	<b>4,075</b>	<b>4,672</b>	<b>1.82</b>	<b>14.66</b>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2021년 6월 확인 기준

○ 주요 수출입 품목

- 품목별 수출입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기계류 및 운송기기, 공산품, 화학 원료 등이 전체 교역품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주요 수출입 품목 중 특히 보일러·기계류, 전기기기·TV 등은 꾸준히 교역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수입에서는 전기기기 분야의 규모가 확대되었는데, 이는 한국으로부터의 축전지 등과 네덜란드로부터의 프로세서 등의 수입 확대에 힘입은 결과로 보여짐.

< 2020년 폴란드의 주요 수출 품목 >

순위	HS Code	설명	수출규모 (백만 USD)	비중(%) (2020)	증감률(%) (2020/2019)
1	84	보일러·기계류	36,529	13.48	-1.00
2	85	전기기기·TV·VTR	34,271	12.64	14.34
3	87	일반차량	26,295	9.70	-13.14
4	94	가구류·조명기구	14,754	5.44	-2.21
5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3,082	4.83	1.01
6	73	철강제품	8,642	3.19	-3.30
7	02	육과 식용설육	5,534	2.04	-5.51
8	44	목재·목탄	5,533	2.04	3.00
9	90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5,471	2.02	3.41
10	40	고무와 그 제품	5,335	1.97	-3.87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2021년 6월 확인 기준

< 2020년 폴란드의 주요 수입 품목 >

순위	HS Code	설명	수입규모 (백만 USD)	비중(%) (2020)	증감률(%) (2020/2019)
1	85	전기기기·TV·VTR	35,960	13.98	9.8
2	84	보일러·기계류	33,924	13.19	0.42
3	87	일반차량	21,216	8.25	-20.26
4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4,798	5.75	-2.57
5	27	광물성연료·에너지	13,514	5.25	-32.54
6	72	철강	8,613	3.35	-9.35
7	30	의료용품	8,533	3.32	14.07
8	90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6,287	2.44	0.54
9	73	철강제품	5,702	2.22	-6.67
10	62	의류와 그 부속품	5,332	2.07	23.61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2021년 6월 확인 기준

## II. 우리나라와의 관계

### 1. 한-폴란드 관계

#### □ 정치적 현안

- 1989년 4월 13일 KOTRA 바르샤바무역관을 개소를 시작으로, 1989년 11월 1일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989년 11월 27일 주 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을 개설
  - 양국은 수교 이후 줄곧 정치·외교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1994년 12월 폴란드 대통령 레흐 바웬사(Lech Walesa)의 방한 및 1996년 5월 이수성 전 국무총리의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함.
  -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 시 양국 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Future-oriented partnership)를 수립한데 이어, 2013년에는 코모로프스키 폴란드 대통령 방한 시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 ‘동맹’ 바로 전 단계)로 양국관계를 격상하였음.
  - 2018년 2월 8일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차 방한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실질 협력 강화, 대북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함.
  - 2019년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향후 인프라, 에너지, 방산 분야 등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논의 중
  - 2020년 4월에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상황 속 양국의 경제·보건 협력을 위한 정상 통화를 하였고,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양국간 협력을 더욱 활발히 하자고 의견을 모았음.

#### □ 경제적 현안

- 1993년 대우전자의 폴란드 진출 이후 1995년 대우자동차의 투자 및 협력업체들의 진출로 한국의 대폴란드 투자가 본격화되었으며, 2019년부터 한국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현지 진출 사례 증가
  - 2004년 폴란드의 EU가입 이후에는 경제 전반 여건의 호전과 전자,가전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였음. 특히 2005년부터 LG전자, LG디스플레이와 협력업체들이 동반 진출하면서 투자가 급증하였으며, 2008년 체코 현대차, 슬로바키아 기아차 공장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계 협력업체들이 폴란드 남부 지역으로 투자진출 해왔음.

- 2010년 삼성전자가 현지 가전회사인 Amica를 인수하면서 폴란드는 우리기업의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전자제품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2017년에는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가동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됨.
- 2019년에는 현재엔지니어링의 석유화학플랜트 수주, 현대로템의 트램사업 수주, 2020년 두산중공업의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수주, 포스코 쓰레기소각장 건설 수주, 인천공항공사 폴란드 신공항 수주 등 국내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현지 진출 사례가 증가하였음.

## □ 문화적 현안

- 우리 정부는 2010년 1월 27일 바르샤바에 주 폴란드 한국문화원을 개원하고 한국과 폴란드 간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해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있음.
- 2005년과 2015년에는 폴란드에서 개최되고 세계 최고 피아노 경연대회로 손꼽히는 쇼팽콩쿠르에 한국 피아니스트들이 참가하여 입상함. 2005년에는 피아니스트 임동혁, 임동민 형제가 공동 3위를 수상하였고, 2015년에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우승을 차지해 한국과 폴란드 양국에 큰 인상을 남김.
- 최근에는 K-POP의 세계적 인기와 함께 10~20대를 중심으로 한류 붐이 일고 있으며, 이에 한국 아이돌 가수 상품, 화장품, 식품 등이 주목을 받고 있음. 2019년에는 KOREA FESTIVAL,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한-폴 우정의 음악회, 제5회 바르샤바 한국영화제 등 행사가 진행됨.

## 2. 한-폴란드 교역현황

### □ 전통적으로 對폴란드 교역은 흑자

- 1989년 폴란드의 자유 시장으로 전환 이후, 우리나라는 폴란드와 교역에서 꾸준한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기준 對폴란드 수출 규모가 수입 규모에 비해 5배 이상 큼.
- 2020년 對폴란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약 41억 달러 규모이며,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6.12% 증가한 7억 달러 규모임.
- 對폴란드 주요 수출품은 축전지, 액정디바이스, 기계류, 철강 등 산업재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타 기계류 및 귀금속 등임.
- 2015~2016년에는 對폴란드 수출액 및 무역수지의 증가세가 잠시 주춤 하였으나, 201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분야 등 對폴란드 투자진출 기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현지 공장설립 및 생산을 위한 기계류, 부품, 축전지 등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음.

#### < 우리나라의 對폴란드 교역 동향 >

(단위 : 백만 USD,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액 (증감률)	3,384 (12.78)	2,624 (-22.46)	2,659 (1.34)	2,859 (7.50)	3,665 (28.19)	4,075 (11.20)	4,672 (14.66)
수입액 (증감률)	501 (-30.56)	424 (-15.50)	505 (19.06)	551 (9.17)	612 (11.20)	697 (13.77)	739 (6.12)
무역수지	2,883	2,200	2,155	2,308	3,052	3,378	3,933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2021년 6월 확인 기준

\* 주 : 앞선 수치와의 일관성을 위해 상기 수출액은 폴란드 기준 對한국 수입액 기준, 수입액은 폴란드 기준 對한국 수출액 기준으로 작성

< 2020년 우리나라의 對폴란드 주요 수출 품목 >

순위	HS Code	설명	수출규모 (백만 USD)	비중(%) (2020)	증감률(%) (2020/2019)
1	85	전기기기·TV·VTR	1,645	35.22	8.26
2	84	보일러·기계류	677	14.49	3.19
3	28	무기화합물	578	12.37	407.08
4	87	일반차량	346	7.41	-21.67
5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336	7.19	-6.13
6	72	철강	148	3.17	2.35
7	73	철강제품	126	2.69	1.71
8	90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109	2.33	-4.28
9	74	구리와 그 제품	106	2.26	100.04
10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86	1.85	24.39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2021년 6월 확인 기준

< 2020년 우리나라의 對폴란드 주요 수입 품목 >

순위	HS Code	설명	수입규모 (백만 USD)	비중(%) (2020)	증감률(%) (2020/2019)
1	71	귀석·반귀석·귀금속	197	26.58	81.16
2	85	전기기기·TV·VTR	111	15.06	-21.55
3	84	보일러·기계류	71	9.60	-6.67
4	82	비금속제 공구, 스푼·포크	34	4.58	-18.63
5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33	4.49	-7.77
6	87	일반차량	31	4.14	109.04
7	69	도자제품	30	4.06	35.74
8	90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28	3.80	6.11
9	22	음료·주류·식초	17	2.29	-6.20
10	30	의료용품	16	2.19	31.56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2021년 6월 확인 기준

## 2. 한-폴란드 투자현황

### □ 우리나라의 폴란드 직접 투자

- 2021년 6월 기준으로 對폴란드 총 투자 누적액은 약 43억 4천4백만 달러이며, 신고된 법인 수는 310개사임.

< 한국의 對폴란드 직접투자 동향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6월)	누계
신규법인 설립수	10	21	14	29	36	22	11	310
투자금액 (백만 USD)	39	54	216	535	1,163	737	124	4,344

\* 주 : '누계'는 1989~2021.6월 수치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2021년 6월 확인 기준

- 1990년대에는 한국-폴란드 수교 이후 동구권 신시장 개척을 위해 대우 등을 중심으로 투자 진출이 이뤄짐.
- 2000년대 중반부터는 폴란드의 EU가입으로 인근국 시장 확대를 위한 제조공장 형태의 진출이 많았으며, 특히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협력업체들이 국경 인근에 다수 진출함.
- 최근에는 전기차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기타 공공프로젝트 건설이나 에너지 분야에도 투자 논의가 활발함.

< 對폴란드 주요 한국 투자기업 >

기업명	산업구분	취급품목	진출형태	진출년도
CTR	자동차	자동차 부품	판매지점	2020
SK이노베이션	전자전기	자동차 전지	생산법인	2019
LS전선	전자전기	케이블	생산법인	2018
LG화학	전자전기	자동차 전지	생산법인	2016
한국타이어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판매법인	2013
삼성전자	가전	냉장고, 세탁기	생산법인	2010
현대자동차	자동차	완성차	판매법인	2000
LG전자(브와바)	가전	LCD, PDP TV	생산법인	1999
기아자동차	자동차	완성차	판매법인	1997
포스코인터내셔널	종합	철강, 금속, 화학 등	연락사무소	1991

\*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무역관 자료 종합

### III. 비즈니스 출장 가이드

#### 1. 시장 특성 및 상거래 관행

##### □ 중동부 유럽 지역의 최대 시장

-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지역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임. 3,800만 명을 넘는 폴란드 인구는 약 1,000만 명 수준인 체코나 헝가리와 비교하여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갖추고 있음.
- 경제 규모는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3개국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임.
- 폴란드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발틱 3국, 체코, 슬로바키아 등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므로 서유럽에서 수입된 완제품 및 원부자재가 이들 국가로 재수출되는 물량도 상당함.
- 이러한 배경 때문에 폴란드 시장을 범 슬라브 시장으로 확대하여 1억의 시장으로 보기도 함.
- EU 역내의 제조업 기지로 급부상 중
- EU의 낙후지역 개발 지원에 상당한 수혜 가능

##### □ 막대한 FDI유입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의존 높음

- (수출) 외투기업 비중이 50% 이상이며, 임가공/OEM방식의 수출이 주종
- (수입) 외투기업의 원자재 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소득증가로 과시적인 소비재 및 내구재(자동차, 전자 등) 수입 활발

##### □ 전략산업 육성 정책 부재

- 전통 산업인 철강, 석탄, 비철금속 분야의 침체 심화
- 반면, 통신 금융 서비스분야의 외투기업 의존도 급증

- 과거 경쟁력을 보유했던 조선 산업은 노후화 및 민영화 실패 등으로 매각되거나 청산되는 추세임.
- 이동통신, 인터넷 등 IT분야 성장률 괄목

## □ 시장의 수요 패턴 변화

- 종래 소품종 대량주문에서 서유럽형인 소량다품종으로 변화
- 중산층 비중 약화로 여전히 가격시장의 행태 보임
- 국제적 관행의 의거한 상거래 경험 부족에서 탈피
- 신용(L/C)보다 외상(D/A)이나 현금거래 방식 선호 비중 높음
-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에서도 식료품, 의약품 등의 필수 소비가 급증하였으며, 가정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게임, 가정용 운동기구 등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제품의 소비 증가

## □ 가격경쟁 심화

- 중국산 등 동남아산 저가품 유입 등으로 가격 인하 압박 증가
- 토종 유통업체들의 품질 제고,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한국산 제품 경쟁력 약화

## 2. 바이어 접촉 시 유의사항

- 위와 같은 폴란드의 시장 특성과 폴란드 바이어들의 거래 관행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실제 폴란드 바이어를 접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우리 수출업체들은 일반적으로 폴란드 바이어 정보를 입수하고 간단한 회사 소개서 및 취급품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거래 제안을 하면서 수입 의사를 타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대해 폴란드 바이어들은 일반적으로

단순 안내, 홍보물로 간주하고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임.

- 우리 기업들이 KOTRA를 통해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서 폴란드 바이어에 자사를 소개하는 경우에도 폴란드 바이어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르샤바무역관에 진행 상황 파악 등을 요청하시길 바람.

### □ 우편으로 관련자료 송부 시 유의사항

-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 회사소개서 및 상품설명서를 폴란드 바이어에 송부하였다 하더라도 바이어의 즉각적인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약 10여일 뒤에 바이어에 다시 지난번 자료의 수신여부를 확인하면서 인쇄된 카탈로그와 관련 자료를 일반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이 필요함.
  - 폴란드 바이어의 경우 전자 카탈로그가 있다 하더라도 지참의 편이성으로 인쇄된 카탈로그를 선호하고 있음.
- 이후 다시 우편이 도착되었을 시점에 팩스나 이메일로 자료의 수신여부를 확인하면서 자사 자료에 대한 검토 의견을 문의하고, 이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회신을 요청하는 교신보다는 일단 인내심을 갖고 두세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회사 및 제품의 변경내역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함. 추후 수익기회가 발견될 시 바이어가 재접촉하여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있음.

### □ 이메일 및 팩스 사용 시 유의사항

- 일부 바이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폴란드 바이어들은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메일의 한계 상 상대방이 정확하게 언제 열람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중요한 것은 다시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음.
- 이메일을 사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팩스와 같이 회사의 로고와 연락처가 명기된 레터헤드 양식을 이용함으로써 바이어가 쉽게 송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는 스팸메일이나 송신자가 확실하지 않은 성의 없는

이메일은 열람하지 않고 삭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팩스 이용 시에도 반드시 레터헤드지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너무 작은 글씨나 수기(手記)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들어 이메일을 해킹하여, 해커가 미세하게 다른 이메일로(예를 들어 ‘-’를 ‘\_’으로 바꾼다거나,逗마를 붙인다거나) 잘못된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가로채는 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바이어와 이메일로 교신 시, 이메일 주소를 자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메일 수신 여부를 유선 등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등 주의가 요망됨.

### □ 바이어에게 제공해야 할 서류나 정보

- (회사 소개서) 대표자의 의례적인 인사말보다는 설립연도, 매출액, 종업원 수, 수출액 및 주요 수출대상 지역(주로 EU국가) 등과 함께 간단한 회사 비전 등 한눈에 회사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정보
- (카탈로그) 일부 회사들은 경비 절감을 위해서 전자 카탈로그를 송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폴란드 바이어들은 인쇄된 카탈로그 선호함.
- (샘플) 부피가 작고 금액이 낮은 제품의 경우 샘플 송부가 바람직함.
- (거래조건 및 가격표) FOB, CIF, DDU 등 다양한 거래조건에 따른 가격표 준비 필요
- (신용상태) 우리 기업의 경우 D&B 등의 공인된 자료를 활용하여 자사의 공개 가능한 신용상태를 알려줌으로써 상담 및 지불조건 진행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음.
- (對유럽 수출현황) 유럽지역에 대한 수출 경험이 있는 경우 수출대상국 및 주요 수출대상업체 등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적지 않은 바이어가 유럽의 중간상을 통해 수입하고 있어, 한국의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할 경우 경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임.
- (기술 및 표준규격) 폴란드의 경우 EU 회원국으로 CE 마크 획득은 가장

기본임. 전기제품의 경우 한국기술표준협회에서 발급하는 CE나 독일의 VDE 등이 있을경우 시중판매가 가능함. 기계 분야는 일반적으로 독일의 DIN 규격을 따르고 있으며, 화학제품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수출업체의 보장이 일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3. 비자 및 출입국 절차

#### □ 비자

- 한국은 폴란드와 비자면제협정('93.12.24 발효)을 체결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 없이 폴란드에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음.
  - 단,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
  - \* 폴란드 비자 관련 안내 : 주한 폴란드 대사관 (<https://seul.msz.gov.pl/>)

#### □ 출입국절차

- 일반적으로 항공편 이용 시 바르샤바 남서쪽에 위치한 쇼팽공항을 통해 입국함.
  - 쇼팽공항의 터미널은 'Terminal A' 하나이며, 입국장은 1층, 출국장은 2층임.
  - \* 영어 : WARSAW CHOPIN AIRPORT / 폴란드어 : LOTNISKO CHOPINA W WARSZAWIE
- 쇼팽공항 입국절차
  - 비행기에서 내리면 쇼팽공항에 도착
  - 입국심사대 통과 (셴겐조약 가입국에서 올 시 입국심사 없음)
  - 수하물 수취대에서 부친 짐을 찾기
  - 세관신고 (신고할 항목 없을 시 불요)
  - 입국장(환영홀)으로 이동
  - \* 입국장으로 나가는 문은 EXIT 1 및 EXIT 2로 나뉘어 있고 어느 쪽으로 나가도 무방하나, 맞이하는 사람이 있으면 확인 후 정해진 문으로 나가는 것이 좋음.
- 쇼팽공항 출국절차
  - 공항 출국장 도착
  -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권하고, 부쳐야 할 짐을 보냄

- 보안검색대 통과
- 출국심사대 통과 (셴겐조약 가입국으로 출국 시 출국심사 없음)
- 탑승 게이트로 이동 및 탑승

## 4. 폴란드 체류 정보

### ☐ 기후

- 폴란드는 서유럽의 해양성 기후와 CIS지역의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그리 덥지 않은 여름과 추운 겨울의 특징을 가짐.
- 봄과 가을은 하루에도 일교차가 크고 날씨 변동이 심하여 방풍복이나 우비 등을 지참하는 것이 좋음.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림.

< 폴란드 지역별 평균 온도 및 강우량 >

구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간
바르샤바	온도 (℃)	-1.9	-1.0	2.7	8.6	14.2	16.8	19.0	18.3	13.4	8.5	3.1	-0.7	8.5
	강우량 (mm)	26.5	26.1	30.2	33.9	54.6	69.8	72.9	62.9	47.3	32.8	39.5	35.0	531.5
그단스크	온도 (℃)	0.1	1.1	3.0	7.0	11.7	15.4	18.2	18.1	14.3	9.4	4.5	1.2	8.7
	강우량 (mm)	16.1	12.8	18.1	22.1	42.5	43.9	60.0	48.9	44.8	34.5	30.1	23.5	651.6
브로츠와프	온도 (℃)	-0.7	0.3	4.0	9.0	14.1	16.8	19.0	18.5	14.0	9.3	4.0	0.4	9.1
	강우량 (mm)	26.9	25.2	33.9	32.7	57.9	68.8	81.0	66.6	45.1	31.8	34.9	32.2	536.9

\* 날씨 정보 : 폴란드 기상청 (<http://www.imgw.pl/en/>)

### ☐ 시차

- 한국보다 8시간 늦음. (폴란드 UTC+01:00 / 한국 UTC+09:00)
  - 여름에는 서머타임 실시로 한국보다 7시간 늦음.
  - \* 2021년 폴란드 서머타임 기간 : 2021.03.28(일) ~ 2021.10.31(일)

### ☐ 화폐 및 환전

○ 환전

- 폴란드에서는 즈위티만 시중에 유통되므로 유로화, 달러화 등 외화는 필히 즈위티로 환전해야 함.
- 유로화를 준비해 현지 환전소(Kantor)에서 환전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함.
- \* 무역관 인근 주요 환전소 : <http://www.kantordiament.pl/>, <http://kantorex.pl/>

○ 화폐

- 단위 : 즈위티(Zloty 또는 PLN) / 1 즈위티 = 100 그로쉬(Groszy)
- 지폐 : 10, 20, 50, 100, 200, 500 즈위티
- 동전 : 1, 2, 5 즈위티 / 1, 2, 5, 10, 20, 50 그로쉬

< 폴란드 지폐 및 동전 >



□ 전화

○ 폴란드 국가번호 '48' / 바르샤바 지역번호 '22'

○ 한국에서 폴란드로 전화할 경우

- 유선전화 : (+ 또는 00) + (48) + (지역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또는 00) + (48) + (전화번호)
- \* 예시 : 유선전화 +48-22-520-6230 / 휴대전화 +48-608-123-456

○ 폴란드 또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경우

- 유선전화 : (+ 또는 00) + (82) + (앞에 0을 생략한 지역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또는 00) + (82) + (앞에 0을 생략한 전화번호)
- \* 예시 : 유선전화 +82-(0)2-3460-7700 / 휴대전화 +82-(0)10-5678-1234

○ 현지 SIM카드 사용방법

- T-Mobile, Orange, Play, Plus 등 폴란드 통신사에서 선불 SIM카드 판매
- 통신사 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전자제품매장 등에서 구입 할 수 있으며, 통신사 매장 등에서 신분증(여권)을 제시 후 사용등록을 해야 이용 가능함.

□ 교통

○ 택시

- 택시정류장, 호텔 등 정차해 있는 택시를 이용하거나, 콜택시 및 택시 모바일앱을 주로 이용함. 지나가는 택시를 부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음.
- \* 주요 콜택시 : 6444444, 6464646, 3334444, 8111111 등 / 모바일앱 : free-now, iTaxi, Bolt 등
- 웬만한 바르샤바 시내 이동 시 요금은 대개 30~50즈워티(약 9,000원~1,5000원) 정도이며, 팁은 의무사항이 아님.
- 택시 위에 택시회사 번호가 명시된 전광판이 없는 택시를 이용할 경우 바가지요금에 시달릴 수 있음.
- Uber 택시도 대중화되어 있어 이용 가능하며, 요금은 일반 택시와 비슷함.

< 바르샤바 시내 택시 요금표 예시 >

구분	평균요금
기본요금	8 PLN
TARYFA 1 (1존 내, 06:00~22:00 사이 요금)	1km당 2PLN
TARYFA 2 (1존 내, 22:00 이후 요금)	1km당 3PLN
TARYFA 3 (1존 밖, 주간 요금)	1km당 4PLN
TARYFA 4 (1존 밖, 야간 및 공휴일 요금)	1km당 6PLN
1시간 정차대기 요금	40 PLN

○ 버스, 트램, 지하철

- 티켓은 시간단위이며 유효한 시간 내 무제한 환승이 가능함. 1존용 티켓과 1~2존용 티켓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쇼팽공항 및 주요 관광지 등 대부분 1존에 위치하여 일반적으로 1존 티켓을 구입하면 됨.
- \* 바르샤바 대중교통 안내 : 바르샤바 대중교통국 'ZTM' (<http://www.ztm.waw.pl/>)

- 티켓은 나이트버스 포함(추가 요금 없음) 모든 교통수단 공용이며, 정류장의 자동발매기(신용카드 사용 가능), 버스 안 자동발매기, 신문가판대, 우체국, 교통국 매표소 등에서 구입 가능함.
- \* 1존 75분 티켓 4.4PLN / 1존 1일 티켓 15PLN / 1존 3일 티켓 36PLN
- 버스, 트램은 승차 후 티켓을 티켓확인기에 넣어 탑승시간을 입력해야 함.
- 최근에는 버스나 트램 내에 티켓 발매기를 설치하여, 미처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 승객은 버스내에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으나 간혹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사 두는 것이 좋음.

○ 공항에서 시내 이동

- 쇼팽공항은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약 10km 떨어져 있으며, 차령으로 약 20~30분 정도 소요됨.
- 택시를 이용하여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올 경우 약 30~40즈워티 정도임.
- 버스는 175번을 이용하면 공항에서 시내까지 한 번에 올 수 있으며, 트램과 지하철은 공항과 연결되지 않음.

□ 문화적 유의사항

○ 식수

- 폴란드는 토양에 석회질이 많고 수도관 파이프가 많이 부식되어 일반적으로 수돗물을 음용하지 않고 생수를 구입해서 마심.
- \* 생수 : Woda Niegazowana / 탄산수 : Woda Gazowana

○ 전기 콘센트

- 폴란드 콘센트는 Type E가 일반적이며,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Type C 및 Type F와 혼용 가능함.
- 전압은 230V로 대부분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나, 헤르츠는 한국과 달리 50Hz로 모터 작동 제품은 장시간 이용 시 고장이 날 수 있음.

< 콘센트 타입 비교 >

Type E	Type C	Type F
		

\* 자료원 : 국제전기표준회의(IEC, <http://www.iec.ch/worldplugs/>)

○ 화장실

- 대부분 식당 및 쇼핑몰 화장실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나, 주요 관광지 및 공용 화장실은 유료로 운영되는 곳이 있고 요금은 1~2즈워티 정도임.
- 화장실 구분을 남자는 역삼각형(▽), 여자는 원형(○)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음.

□ 주요 관광지

○ 구시가지(Stare Miasto, 1980년 UNESCO 세계문화유산 지정)



- 바르샤바 시내 중심부 위치, 무역관에서 약 3km (차량이동 10분)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점령되었으며, 전쟁 막바지 독일군이 구시가지 전체를 초토화시켜 13세기~18세기에 걸쳐 건설된 이 지역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후 폴란드는 공산정권 시절이던 1951년부터 1966년에 걸쳐 각계각층의 고층 자료를 활용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용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구시가를 옛 모습 그대로 복원시켰다. 유네스코는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할 때 13세기의 역사를 20세기에 고스란히 복원해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곳이라며 칭찬한 바

있다. 구시가지에는 바르샤바 왕궁, 수도를 크라쿠프에서 바르샤바로 옮긴 지그문트 3세 동상, 마켓스퀘어, 성곽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폴란드 전통식당과 노천식당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차나 음료를 한잔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 왕궁(Zamek Królewski)



- 구시가지 입구에 위치, 무역관에서 약 3km (차량이동 10분)
- 이 왕궁은 폴란드 왕국의 상징으로 13세기에 이 지역을 다스리던 마조비아(Mazovia) 공작의 요새였다. 14세기 중반에 방어용의 큰 탑과 성벽이 세워졌으며, 15세기 초에는 벽돌로 고딕식 왕궁이 세워졌고 여러 개의 부속 건물이 건립되었다. 왕궁 안으로 입장하면, 많은 미술품과 공예품을 볼 수 있고 왕과 왕비의 거주공간도 볼 수 있다. 폴란드의 수도는 원래 크라쿠프였으나, 스웨덴의 침입과 화재로 크라쿠프 왕궁이 큰 손실을 입고 1596년 지그문트 3세에 의해 바르샤바로 천도하였다. 바르샤바 왕궁은 스웨덴의 2차 침입으로 전소되는 등 많은 수난을 당하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다시 새로 복구되었다. 16~17세기에는 이 왕궁은 의회를 포함한 정치의 중심이었고, 폴란드에서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이교도들에게 법적으로 자유를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역사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지닌 건물이다. 1918년 독립한 후 왕궁은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었는데 나치의 침략에 의해 파괴되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주춧돌만 남은 정도로 철저히 파괴되었으나 전후 공산정권 시절 복구되었다.

○ 와지엔키 공원(Łazienki Park)



- 바르샤바 시내 중심부 위치, 무역관에서 약 4km (차량이동 15분)
- 폴란드 최후의 왕인 스타니스와프(Stanislaw Augustus Poniatowski)에 의해 18세기 후반 만들어진 공원이다. 와지엔키는 ‘목욕탕’이라는 뜻으로 당시 이 지역은 귀족들의 사냥터였는데 사냥을 마친 후 이 곳에서 목욕을 했다고 한다. 스타니스와프 왕은 러시아의 여제 예카테리나 2세의 연인으로 그녀의 후광에 힘입어 왕이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무력하여 현실에서 도망치듯 공원의 조경에 열중했다. 그는 폴란드가 러시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3국에 의하여 분할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1795년 폴란드 분할 문서의 조인을 강요당한 뒤 퇴위하여 1798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상을 떠났다. 공원은 나무가 무성하며, 입구 쪽에는 쇼팽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여기서 여름철 일요일이면, 피아노 연주회가 열리기도 한다. 또한 공원 안 연못가에는 수상궁전이 있다.

○ 빌라누프 궁전 (Pałac w Wilanowie)



- 바르샤바 시 남동부에 위치, 무역관에서 약 13km(차량이동 30분)
- 이슬람교도들의 침략 속에서 유럽 기독교 문명을 지켜낸 얀 소비에스키 3세의 여름 별궁이다. 프랑스 왕가 출신 왕비를 위해 베르사유 궁전을 본떠 만들어서, 화사한 바로크 양식의 궁전 건물을 프랑스식 정원이

감싸고 있는 형태이다. 시내와는 떨어져 있어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복잡한 시내를 벗어나 호젓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 쇼팽 생가(Żelazowa Wola)



- 바르샤바 시외 서쪽 근교에 위치, 무역관에서 약 55km (차량이동 1시간)
- 폴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프레데릭 쇼팽의 출생지이다. 쇼팽은 프랑스인 아버지와 폴란드 귀족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천재성을 발휘했던 쇼팽은 7살에 바르샤바로 이사를 갔지만 종종 이 곳을 방문하여 예술가로서의 감성을 연마하였다 한다. 쇼팽이 떠난 후 이 집은 농장 마구간으로 사용되는 등 점차 퇴락해 갔으나, 19세기 말 쇼팽을 추앙했던 한 러시아 음악가에 의하여 복원, 수리되어 쇼팽 기념관으로 바뀌었다. 20세기 들어 발족된 쇼팽 협회가 현재 이 집을 관리하고 있다. 생가 주변의 지역을 포함하여 현재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세계 각국의 쇼팽 음악 애호가들이 각종 식물을 기증하여 약 1만 5,000종이 있다. 한편, 1830년 폴란드를 떠난 쇼팽은 크라쿠프, 프라하, 비엔나, 뮌헨 등을 거쳐 파리에 정착한 뒤 여류 작가인 조르주 상드를 만나게 된다. 상드의 후원 아래 쇼팽은 그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다가 39세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후 쇼팽의 심장은 바르샤바로 옮겨졌고, 구시가지 입구에 있는 성십자가 성당에 안치되었다.

○ 오슈비엔침 수용소(Oświęcim, 1980년 UNESCO 세계문화유산 지정)



- 폴란드 남부 크라쿠프 시 근교에 위치, 무역관에서 약 320km(차량이동 4시간)
- 독일어 아우슈비츠(Auschwitz)로 더 잘 알려진, 수많은 유대인과 반 나치 인사들이 집단 학살된 오슈비엥침 수용소. 역사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그 악명을 익히 들어 알고 있을 만큼 세계 현대사에서 가장 강렬한 비극을 남긴 현장이다. 나치가 소련군에 패해 물러나며 미처 파괴하지 못한 제1수용소는 박물관이 되었고, 3km 거리의 제2수용소 비르케나우(Birkenau)는 광활한 터로 남아 있다. 원래 정치범 수용소의 명목으로 건설되었으나 1941년 대량 학살 시설로 확대되면서 약 400만 명의 유대인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폴란드 의회는 이 끔찍한 만행을 인류에 널리 알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용소를 박물관으로 조성했고,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었다.

□ 현지식당 정보

구분	식당명	전화 / 주소	비 고
현지식	Belvedere	+48-22-558-6701 Agrykola 1	- 와지엔키 공원에 위치 - 폴란드 전통음식 및 양식
	Podwale 25	+48-22-635-6314 Podwale 25	- 구시가지에 위치 - 폴란드 전통음식 및 양식
	Zapiecek	+48-22-692-7204 Krakowskie Przedmiescie 55	- 바르샤바 올드타운 인근 위치 - 폴란드 전통음식
	Różana	+48-22-848-1225 Chocimska 7	- 와지엔키 공원 남쪽에 위치 - 한국 여행방송에 소개된 폴란드식 식당
	Concept 13	+48-22-310-7373 Bracka 9	- 시내 중심가 백화점 건물 최고층에 위치 - 폴란드 전통음식 및 양식
	Stary Dom	+48-22-646-4208 Pulawska 104/106	- Mokotow 지역 위치 - 폴란드 전통음식
한식	소라(Sora)	+48-22-214-5888 Wronia 45/lok. U3 00	- 삼성R&D센터 맞은편으로 시내 위치 - 한식, 일식 등
	아리랑	+48-22-881-7851 Nowogrodzka 38	- 노보텔 센트럴 호텔 인근 위치 - 순대국, 설렁탕 등
	코리아나	+48-22-415-6681 Filtrowa 62	- 공항에서 바르샤바 시내 오는 길목에 위치 - 런치박스, 다양한 한식
	명(Mei)	+48-571-219-973 Solec 81B	- 한국문화원 맞은편 위치, 올드타운 뒤쪽 - 김치말이국수, 제육, 양념치킨 등
	강남	+48-881-661-323 Kolejowa 47B/U6	- 삼성R&D센터 인근 시내 위치 - 한식, 일식 등
	오스시 앤 그릴	+48-22-642-1618 Wiertnicza 102	- 빌라누프 궁전 인근 위치 - 짬뽕, 전골, 일식 등
	라스(Akiyama)	+48-22-651-7010 Kostki Potockiego 24a	- 빌라누프 궁전 인근 위치 - 삼겹살, 차돌박이 등
일식 / 중식	Nippon-Kan	+48-22-585-1028 Nowogrodzka 47A	- 시내 중심가에 위치 - 스시, 우동 등 다양한 일식
	Izumi Sushi	+48-424-0055 Bialy Kamien 4	- 에코파크 인근 위치 - 스시, 우동 등 다양한 일식
	Pekin Duck	+48-22-412-8988 Drawska 29	- Blue City 쇼핑몰 인근에 위치 - 북경오리 등 정통 중식

< 폴란드 주요 전통음식 >

- 코틀레트 (Kotlet) : 한국식 돈가스와 비슷
- 샤 슈 워 (Szaszlyk) : 돼지고기, 소고기, 소시지, 양파 등의 꼬치구이
- 골 론 카 (Golonka) : 돼지족발 요리
- 스 하 브 (Schab) : 돼지고기 안심요리
- 비 고 스 (Bigos) : 양배추, 버섯, 소시지 등을 넣고 삶은 요리
- 피에로기 (Pierogi) : 폴란드식 만두
- 바르스츠 (Barszcz) : 비트를 갈아 만든 전통 스프
- 주 렉 (Zurek) : 밀가루, 마늘을 발효시켜 만든 전통 스프

□ **현지 주요연락처**

○ 주 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 주 소 : ul. Szwolezerow 6, 00-464 Warszawa, Poland
- 연 락 처 : +48-22-559-2900 ~ 04 / koremb\_waw@mofa.go.kr
-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pl-ko/index.do>

○ 폴란드 재외한국문화원

- 주 소 : ul. Leona Kruczkowskiego 8, 00-380 Warszawa, Poland
- 연 락 처 : +48-22-525-0930 / kulturakoreanska@gmail.com
- 홈페이지 : <http://pl.korean-culture.org/>

○ KOTRA 바르샤바무역관

- 주 소 : WFC 9층, ul. Emilii Plater 53, 00-113 Warszawa, Poland
- 연 락 처 : +48-22-520-6230 / biuro@kotra.pl
- 홈페이지 : <http://www.kotra.or.kr/KBC/warsaw/>

○ 현지 긴급연락처

구분	연락처	구분	연락처
경 찰 서	997	도시경찰	986
소 방 서	998	도로지원	981
구 급 차	999	모든 긴급상황	112

\* 교통사고 신고전화 : +48-22-603-7755

\* 주폴란드 한국대사관 비상연락처 : +48-887-460-600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http://www.kotra.or.kr)